

“메타버스 시대 속 인공지능, 영역의 확장·융합 이뤄야”

디지털 학습 통해 기술 정교화 헬스케어, AI 기여 성과 부족 사용자 경험 중심 융합해야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번역과 헬스케어 기술이 살아남기 위해선 디지털 학습을 통해 기술을 정교화시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지난 24일 연 ‘2021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인공지능(AI), 헬스케어를 넘어 웰케어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외진 대표는 메타버스 시대에 인공지능은 영역의 확장과 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헬스케어 분야도 다양한 이유로 인공지능이 기여하는 성과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혁신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융합”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 성과를 내고있는 국내 기업이 많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원



박외진 아크릴 대표가 2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1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2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2021 뉴테크놀로지 포럼’이 열렸다. /손진영 기자 son@

인은 규제도 있다. 다만 규제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내와 손실을 감수할 역할을 맡겨야 된다는 건데 이를 조율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외진 대표는 융합의 종류를 학문적 융합, 산업적 융합, 사용자경험 중심 융합 세 가지로 구분하며, 시장 저항과 투자비용이 적은 사용자경험 중심 융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맞춤형 화장품이 등장한다면 산업 융합이지만, 만약 피부

를 측정했는데 다른 것까지 컨설팅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사용자경험이 융합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박 대표의 생각이다.

AI 번역 기술도 메타버스 시대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이정수 플리토 대표는 “메타버스 시대 언어인공지능은 범용 번역기, 분야 특화 번역기, 기업 특화 번역기, 초개인화 번역기(한 개인의 말투나 사투리 등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가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개인화의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야 돼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수 대표는 “이런 것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데이터 학습을 계속해야 한다.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언어 데이터”라며 “언어는 복제가 안 된다. 번역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영화 자막 등도 주관성이 상당하다. 데이터 입력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가 언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 대표는 메타버스를 위한 더 완벽한 번역기술을 만들기 위해선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에서 학습했을 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꽤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래는 완벽해질 것이냐. 자연스럽게 메타버스에서 대화, 소통이 될 것이냐. 개인적으로 완벽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다. 논리정연하긴 하지만 감정이 없다. 조금만 깊게 글을 보면 상당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인공지능과 인간이 합심해서 함께 노력해야 메타버스 속 소통도 좀 더 정교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동·서양을 콘텐츠로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의 나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2025년 340조까지 성장”

2021 뉴테크놀로지포럼 축하

이 광 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메트로경제의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메타버스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의 로지, 미국의 릴 미켈라와 같이 가상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휴먼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경제활동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제페토는 약 1억8000여 만명이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20억명, 페이스북 20억명, 우리도 이 제페토가 10억, 20억명이 사용해서 디지털 경제영토로 확장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버틀란트 러셀이란 철학자가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는 나라가 세계의 문명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콘텐츠로, 스토리로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의 나라, 그것이 제페토와 메타버스 세상에서 무한정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죠. /김승호 기자 bada@

2021 뉴테크놀로지포럼 축하

조 풍 연 한국소프트웨어·ICT 총연합회장

반갑습니다. 아까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로블록스, 포트나이트는 재택근무나 수업용으로 수십억명을 받을 수 있는 대용량 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계에서 현실감 있는 현장 구현을 위해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 메타버스 기업들이 2~30개가 되는데 앞으로 150개를 목표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도 올해는 34조인데 2025년에 340조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이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이 흐름을 의식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100만명 이상이 뛰어들어 디지털 대전환을 맞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인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준혁 기자

“디지털 전환의 시대… AI·메타버스 중심될 것”

2021 뉴테크놀로지포럼 축하

김 재 하 한국메타버스학회 회장

김재하 한국메타버스학회 학회장(서울예술대학교 교수)가 24일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2021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키워드는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임을 강조했다.

다음달 출범을 앞둔 한국메타버스학회의 초대 학회장을 맡은 김 교수는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AI와 메타버스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메타버



스는 미래비전은 있지만 거품도 끼어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가상세계라는 새로운 사회인 만큼 규범과 제도, 윤리 문제 등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는 “메타버스학회는 많은 학자들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메타버스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체를 만들어 이 세상에 기여하자는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2021 뉴테크놀로지포럼 개최사

이 정 희 메트로미디어상무

메타버스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글로벌 경영 기업들이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IT, 경제, 문화, 정치 등으로 확대되는 등 우리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앱을 설치하고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페토 월드에 입점하는 공방 등 다양한 가상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타버스는 새로운 흐름의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새로운 세계지만 아직 완성된 플랫폼은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PC 웹

과 모바일 앱이라는 두 차례 격변 이후 나타난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이 시장을 선점해야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최근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제 13차 ASEM 정상회의 개막…‘코로나19 극복’ 방안 논의
▲미 연준 “물가 계속 급등시 테이퍼링 가속·조기 금리인상 준비” /사진 뉴시스

▲중국·이란,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목소리로 비난
▲독일, 누적 사망 10만명 돌파…백신 의무화 검토 중



▲호주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UAE 왕세자, 9년만에 터키 방문…11조원 대규모 펀드 조성 /사진 뉴시스